# 하늘중력의 선지자 예레미야

## (예레미야 1:1~19)

1.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2.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십삼 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십일년 말까지 곧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늘중력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중력의 선지자 예레미야'
뉴턴(Isaac Newton)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1665년 영국에서는 흑사병이 대대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뉴턴이 재학 중이던 케임브리지 대학교도 문을 닫았고, 뉴턴은 고향에 내려가 3년 가까운 기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뉴턴의 3대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미적분, 빛의 스펙트럼 현상,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상에서 뉴턴과 같은 인물을 찾아본다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중력을 의식하고 예언활동을 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 용어 중에 '앨버트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새의 이름입니다.
이 새는 기류를 잘 타고 독수리보다도 높은 곳에서 유유자적하는 새입니다. 앨버트로스는 어떻게 이토록 자유롭게 중력을 거스르는 힘을 지닐 수 있을까요? 앨버트로스의 새끼는 알에서 부화한 첫날 죽음을 맛본다고 합니다. 어미가 바다로 가서 새끼를 떨어뜨리면 바다에서 헤엄치던 표범상어들이 앨버트로스 새끼를 삼키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떨어지는 새끼의 눈에는 수면으로 다가와 입을 벌리고 있는 상어가 보입니다. 이 공포에 사로 잡혀서 있는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게 되고, 죽을힘을 다해 날갯짓을 해서 수면에 빠지지 않은 새끼들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새끼들이 독수리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수 있는 비상의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중력은 사람의 마음에도 작용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중력에 마음이 끌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중력의 효과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지표면에 발을 붙이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지만, 달의 중력은 지구의 1/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달에 간 우주인들의 영상을 보면 불안정하게 걸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세상중력이 작용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안정된 직업을 찾고 안정되기 위해 결혼을 하려고합니다. 반대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 결혼을 일부러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도 불화와 갈등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안정감에 집착하는 이유는 세상중력이 마음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상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앨버트로스의 이야기를 보면 바다에서 죽음을 본 새끼들이 독수리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앨버트로스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향해야 마땅합니다. 앨버트로스의 새끼가 수면에 올라온 상어의 입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보듯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며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죽음을 보는 자들에게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하늘로 들려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형이지만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마음은 하늘중력이 아닌 세상중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명을 단순히 지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제1계명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의 반영입니다. 두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들은 제1계명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계명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명령형으로 쓰여 졌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앨버트로스의 새끼들이 죽음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보는 자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중력에 마음이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일이면 헤롯대왕에게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어도 마음을 하늘에 올려 보내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배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하늘중력을 따라서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 마음을 올려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늘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안정감과 평안의 문제를 특별히 민감하게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처소의 상황에 따라서 불안해지기도하고 기뻐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애인이 치안이 불안한 남미로 여행을 갔습니다. 나의 몸은 치안이 안정적인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애인을 향해 있기에 불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보고 마음이 하늘에 머물게 되면 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마음은 아버지 품에서 항상 안정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겨냥하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들이 세상중력에 따른 거짓 평안을 추구하고 거짓 평안을 누리면서 이에 대해 회개하려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들을 세상중력에 이끌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안정된 토대를 만들고 안주하게 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중력에 이끌려서 하늘중력을 벗어나 세상의 안정감과 세상의 거짓 평안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택한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잘못된 제사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세 부류에 대해 예언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요시야 왕 13년으로써 예레미야는 20세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악한 왕이었던 아몬의 아들이고, 그보다 더 악했던 므낫세 왕의 손자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수명을 연장 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므낫세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록 숭배를 성전 안에 끌어들일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행이 이방인보다 더 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그 악행은 아들 아몬에게로 이어졌고, 그 손자인 요시야 대에 이르러서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도 요시야가 전사하며 중단되었고, 이후로는 패륜적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다섯 대에 걸쳐 40년 동안 예언활동을 하였는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써 부름 받으며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살구나무의 환상과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는 본래 아몬드나무로써 히브리어로 샤켄드(שָׁקֵד)입니다. 샤켄드는

‘깨어있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적도에 가깝지만 나름대로 겨울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식물들이 시들고 죽습니다만, 봄이 오면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이 살구나무였습니다. 여전히 겨울 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이 살구나무만이 봄기운을 받고 꽃을 피웠습니다.
모든 선민들이 세상중력에 이끌려서 세상에서 안정된 토대를 갖기를 꿈꾸며 그로 인해 평안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선민들을 종용하였습니다. 선민들은 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세상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홀로 하늘중력을 받는 자로써 마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살구나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끓는 가마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바벨론 세력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은 이해하지만 그 영향력이 백성들의 마음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이사야서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참혹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인지 요시야는 일찍 죽었습니다. 요시야 사후에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 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앗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앗수르의 잔존세력들은 하란을 거점으로 결집하여 바벨론에 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느고 왕은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앗수르의 잔존세력과 힘을 합쳐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앗수르로부터 자유로웠던 상황이었기에 앗수르를 돕는 애굽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므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애굽의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웁니다. 남 왕국 유다는 애굽에 의해 왕위가 좌우지되는 굴욕적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방 세력인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이들이 세상중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중력에 이끌려서 이 세상에서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는 안정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불안정을 가져다주십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고 건강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제발 좀 세상중력에서 벗어나 하늘중력에 이끌려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몸이 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하늘중력에 사로잡히면 육체의 상황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육체가 있는 곳에 마음까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경고성의 예언

을 해나갑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중력에 사로잡혀 살지라도 선민은 하늘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늘중력이 작용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성전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까지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본래 제사는 세상중력에 이끌려서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나를 번제단에서 상번제로 드려지는 양과 일치시켜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중력으로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중력에 끌려서 세상 안정감을 찾는 방편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중력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용인하고 권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상숭배도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중력에 사로잡힌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앨버트로스의 새끼들이 죽음을 바라보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활시키실 것이고, 예수님을 들어 올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삶이 안정될 때의 부모의 마음도 안정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당연하거나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녀에 대해서조차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하늘중력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의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평안을 자녀에게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참수를 앞두고도 깊은 잠에 빠졌던 것처럼 하늘의 평안을 갖는 것이야 말로 신앙인이 추구해야할 이상이고 믿음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세상중력으로 세상에 토대를 만들고 거짓된 안정과 평안을 얻으려는 체질을 벗어나 하늘중력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삶을 흔드시며 경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안정을 찾고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써 확고하게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에 작용하는 두 가지 중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아담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세상중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앨버트로스의 새끼들이 죽음을 보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죽음을 보고 하늘중력에 이끌려서 창공을 나는 하늘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